

간호대학생의 성격특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김경하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Kyoung-Ha Kim(gh6081@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자기관리모델을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성격특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광주와 전남 지역 2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 Pearson 상관관계수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격특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성실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간호교육현장에서 필요함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성격특성 | 사회적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

Abstract

This study was examine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social recognition career self-management model. The subjects were nursing students attending 3rd and 4th grade in two nursing colleges in Gwangju and Chonnam area. The 208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3.0 for windows. Personality traits,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preparedness behaviors. Conscientiousness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ere report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traversion and social support were reported to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trategies to improve conscientiousness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hould be provided in nursing education field.

■ keyword : | Personality Traits |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 본 연구는 2017년도 송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8년 01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2월 19일

수정일자 : 2018년 02월 19일

교신저자 : 김경하, e-mail : gh6081@hanmail.net

1. 서론

최근 심각한 취업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높다는 이유로 다른 전공에 비해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1].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이 해마다 늘어나고는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간호사 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있고[2][3],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까지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2]. 정부는 이러한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간호학과 신설과 입학정원을 증원하여 신규간호사 공급을 늘려왔다[4].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호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5],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간호사 평균 이직률의 두 배 이상 높게 보고되고 있다[6].

간호대학생의 경우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입학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전공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1], 입학함과 동시에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생활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7], 본인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준비 없이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하게 됨으로 취업 후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직장 조기이탈로 이어지게 된다[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간호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접근은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이라는 제도적 접근 외에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직업세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 동안 진로준비를 돕는 접근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행동 또는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9].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세계로 성공적으로 입문하기 위해서 대학생활 동안 진로준비행동을 실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9].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첫 직장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10]와 간호직 종사자들이 다른 보건 관련 종사자들보다 업무만족이 낮고 조기이직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가 미흡한 진로준비행동에 있다는 연구결과[11][12]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취업과 취업

후 적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로준비행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13], 최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으로 간호전문직관[13][14], 셀프리더십[14], 전공만족도[15], 진로정체감[13], 학업적 자기효능감[16] 및 회복탄력성[16]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 대부분이 특정 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로 제한되며 진로발달이론에 근거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간호대학생과는 달리 일반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접근은 진로발달이론인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하여 활발하게 시도되어 왔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행동적 변인과 행동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및 성격 특성에서부터 학습경험, 인지적 요인 및 환경적·맥락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고려한 이론으로 진로행동을 통합적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연구가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는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Lent와 Brown(2013)[17]이 제시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진로발달이론인 사회인지진로이론은 Lent, Brown과 Hackett(1994)[18]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는데 사회인지이론[19]의 개인, 환경 및 행동의 상호간의 인과관계에 주목하면서 특별히 진로발달과 관련된 개인의 사회인지적 메커니즘으로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목표의 세 가지 개념을 강조하였다. 개발 초기의 세 가지 모형인 흥미, 선택 및 수행 모형은 인간의 긍정적인 기능 및 정신적 건강에 초점을 둔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주관적 안녕감 변인인 특질적 정서, 진로만족 및 삶의 만족 변인을 포함시키면서 사회인지진로이론 통합모형으로 확장되었다[20]. 이후 Lent와 Brown(2013)[17]은 진로결정이 전 생애에 걸쳐 수차례 반복되므로 후기 청소년부터 재취업자 및 은퇴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전 생애를 아우르는 진로모형인 사회인지진로자기관리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후기 청소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적응적 진로행동을 제시하였고,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시기의 적응적 진로행동과 관련된 응용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응용모형에서 모든 구성 개념들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념들이다[그림 1]. 본 연구에서는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적응적 진로행동에 초점을 두고, 진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들 사이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성격특성 변인인 성실성(C)과 외향성(E), 맥락적 변인인 사회적지지, 인지적 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진로준비행동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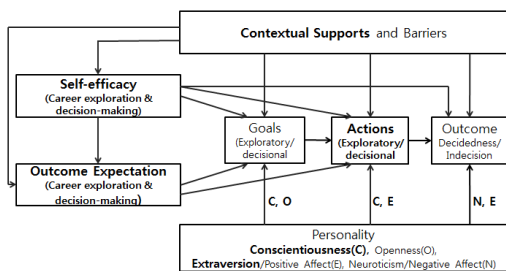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인지진로자기관리모형 (Lent & Brown, 2013)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과 김계현(1997)[9]에 의해 진로지도나 진로상담 관련 연구 분야에서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과 더불어 행동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개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후 그 결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말한다[9].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된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격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정신적, 신체적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21], 성실성은 물리적 환경의 조직, 근면성, 완벽성 및 신중함의 정도이며, 외향성은 사회적 활동과 관련하여 자존감, 대담성, 사교성 사회적 규칙, 규범 및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말한다[22]. 성격특성 도구로 '성격 5요인' 도구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Lee와 Ashton(2004)[22]의 연구를 통해 '성격 6요인'이 제시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격 6요인'에 근거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성실성과 외향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상관 및 인과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23][24], 성실할수록, 외향적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만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적 속성을 통해 실제상황에서 제공받는 지지수준과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수준으로[25], 진로발달에서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인 진로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26].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상관 및 정적영향을 미쳐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7][2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2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상관 및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27][30][3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

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한 연구들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 중 진로준비행동에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으로 보고되었다[28][30].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지역 1개, 전남지역 1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과 4학년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학생을 편의표집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적정 표본 크기 산정을 위해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인 16개로 산출한 결과 204개였으며, 회수율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부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을 보인 12부를 제외한 208부를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수집에 앞서 각 간호대학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대학의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득하였다.

2 연구도구

2.1 성격특성

성격특성 측정도구는 Ashton과 Lee(2009)[32]가 개발한 HEXACO 성격검사 도구 중 성실성 10문항, 외향성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실성, 외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개발당시 성실성 .89, 외향성 .90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실성 .86, 외향성 .90 이었다.

2.2 사회적지지

박지원(1995)[2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조명실과 최명숙(2007)[33]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개발당시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2.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Betz, Klein과 Taylor(1996)[34]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CDMSES-SF) 25문항을 이기학과 이학주(2000)[35]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개발당시 .94,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는 김봉환과 김계현(1997)[9]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16문항에 진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활성화와 학내 진로 관련 상담센터들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2문항을 추가한 이명숙(2003)[36]의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연령은 25세 이하가 94%, 성별은 여자가 91%로 많았고, 학년은 3학년이 46%, 4학년이 54%였으며, 종교는 무교가 47%로 가

장 많았다. 동아리 활동 여부는 '무'가 60로 많았으며, 학과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유리한 취업, 24%, 적성과 흥미 21%, 안정적인 직업 20%, 다른 사람의 권유가 19%, 가치 있는 직업 14%, 성적에 따라 3%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는 중이 66%, 이진학기평점은 중이 66%, 경제상태는 중이 88%, 건강상태는 중이 68%로 가장 많았다. 취업경험은 없다가 9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표 1].

2.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정도

본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성실성의 평균은 3.05점(SD=.61), 외향성의 평균은 3.41점(SD=.65),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3.90점(SD=.4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57점(SD=.45),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2.70점(SD=.46) 으로 조사되었다[표 2].

3.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성실성은 외향성과 정적상관($r=.174, p<.05$)을, 사회적지지와 정적상관($r=.245, p<.01$)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을($r=.371, p<.01$),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상관($r=.320, p<.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은 사회적지지($r=.635, p<.01$)와 정적상관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을($r=.496, p<.01$),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상관($r=.283, p<.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498, p<.01$)과 정적상관을,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상관($r=.300, p<.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상관($r=.474, p<.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결론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은 성실성이 높을수록, 외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가장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일반적 특성 (N=208)

특성	n(%)	
나이	25세 미만	195(94)
	25세 이상	13(6)
Gender	남자	19(9)
	여자	189(91)
Grade	3학년	95(46)
	4학년	113(54)
종교	기독교	72(35)
	불교	13(6)
	천주교	22(11)
	무교	98(47)
	기타	3(1)
동아리 활동	유	84(40)
	무	124(60)
학과지원동기	적성과 흥미	44(21)
	유리한 취업	49(24)
	가치있는 직업	29(14)
	안정적인 직업	40(20)
	성적에 따라	6(3)
학교생활만족도	다른사람의 권유	40(19)
	하	28(14)
	중	150(72)
이진학기평점	상	30(14)
	하(C-F)	23(11)
	중(B)	138(66)
경제상태	상(A)	47(23)
	하	22(11)
	중	182(88)
건강상태	상	4(2)
	하	9(4)
	중	142(68)
취업경험	상	57(27)
	유	17(8)
	무	191(92)

표 2. 변수의 기술적 통계 (N=208)

변수	M±SD
성실성	3.05±.61
외향성	3.41±.65
사회적지지	3.90±.4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57±.43
진로준비행동	2.70±.46

표 3. 변수의 상관관계 (N=208)

변수	1	2	3	4	5
1	1				
2	.174*	1			
3	.245**	.635**	1		
4	.371**	.496**	.498**	1	
5	.320**	.283**	.300**	.474**	1

* p<.05, **p<.01

1.성실성, 2. 외향성, 3. 사회적지지,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 진로준비행동

표 4.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N=208)

Variables	B	SE	β	t	Ad. R ²	F
성실성	.104	.050	.140	2.068*	.244	7.670***
외향성	.027	.058	.039	.465		
사회적지지	.046	.085	.045	.53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79	.085	.356	4.438***		

* p<.05, ***p<.001

4.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Lent와 Brown(2013)[17]의 사회인진로자기관리모델에 근거하여 진로행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 변수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확인하였고 확인된 변수는 더미변수 처리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확인 결과 학교생활만족도, 지난학기평점, 건강상태였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지난학기평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가 가장 작은 값이.424로 .10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분산팽창인자(VIF)는 가장 큰 값이 2.356으로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서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7.670, p<.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²)는 .244로 본 연구변인들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24.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β =.356, p<.001), 성실성(β =.140, p<.05) 순으로 나타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실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과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성실성이며, 이 중 가장 강력한 영향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조기 이직 및 퇴사의 감소를 통해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간호대학생 시기에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로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실성과 진로준비행동 간 정적상관은 성실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한다는 연구결과[23][24]와 일치하였고, 외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 정적상관은 외향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한다는 연구결과[23][24]와 일치하였으며,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 정적상관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한다는 연구결과[27]와 일치하였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 정적상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27][28][30]와 일치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이는 사회인구학적변인인 대학생활만족도, 지난학기성적,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실성, 외향성, 사회적지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성실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실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한다는 연구결과[23][24]와 일치하였고, 외향성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향적인 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한다는 연구결과[23][24]와 일치하지 않았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특성(성격5요인)과 진로준비행동 간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는 소수이기는 하나 외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바, 본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특성과 진로준비행동 간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존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성격 5요인' 도구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 6요인' 도구에 대한 연구대상별 도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한 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한다는 연구결과[27][28]와는 일치하지 않았고,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30]와는 일치하였다.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37], 사회적지지가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변수나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는 특정 대상이 아닌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를 측정한 것이므로 대상자마다 생각하는 지지체계가 일관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추후 가족, 친구, 교수 등 특정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 집단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27][28][31]와 일치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38]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던 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인데, 여러 연구들[28-30]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보고되고 있는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실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와 외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은 한 개인에게 일관되게 나타내는 성격 특성 중 한 부분으로 단기간에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대학생할 동안 계획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훈련을 통해 성실성이 증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간호교육현장에서 교과과정 내에 진로교과목을 운영을 통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자기관리모형을 근거로 진로행동에 직접적인 인과 경로를 나타내는 제 변인들을 설정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진로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상급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그러므로 연구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은아, 장금성,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예측모형 구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2호, pp.321-322, 2012.
- [2] 오영호, “2025년까지의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의 수요 및 공급 전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pp.139-161, 2010.
- [3] Z. C. Can, W. S. Tam, M. K. Lung, W. Y. Wong, and C. WChau,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nurse shortage and the intention to leave,” J. of Nursing Management, Vol.21, No.4, pp.605-613, 2013.
- [4] 이태화, 강경화, 고유경, 조성현, 김은영, “국내의 간호사 인력정책의 현황과 과제,” 간호행정학회지, 제20권, 제1호, pp.106-116, 2014.
- [5] 대한간호협회, “입학정원 확대해도 뒷걸음치는 간호사 순증가율,” 대한간호, 제52권, 제1호, pp.21-22, 2014.
- [6]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http://www.khna.or.kr/web/information/resource.php>, 2016.11.17.
- [7] 박순주, “진로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2호, pp.259-267, 2012.
- [8] 이경아, 김진현,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몰입 대한 인식,” 간호학의 지평, 제12권, 제1호, pp.42-49, 2015.
- [9] 김봉환, 김계현,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상담치료, 제9권, 제1호, pp.311-333, 1997.
- [10] 이승구, 이제경, “한국 대학생의 취업목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첫 직장 만족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pp.1-25, 2009.
- [11] 고영지, 김인경,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1호, pp.62-71, 2011.
- [12] 문인오, 이경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83-91, 2010.
- [13] 성지아, 방소연, 김순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인간강과학회지, 제2권, 제2호, pp.29-38, 2012.
- [14] 장태정, 문미경,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행정학회지, 제22권, 제4호, pp.344-352, 2016.
- [15] 정효주, 채민정,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7권, 제5호, pp.05-117, 2017.
- [16] 박현희, 김순이, “간호대학생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0권, 제6호, pp.369-378, 2016.
- [17] R. W. Lent and S. D. Brown,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 of Counseling Psychology, Vol.60, No.4, pp.557-568, 2013.
- [18] R. W. Lent, S. D. Brown, and G. Hackett,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No.1, pp.79-112, 1994.
- [19]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 [20] R. W. Lent and S. D. Brown, “Integrating person and situation perspectives on work satisfaction: A social-cognitive view,” J. of Vocational Behavior, Vol.69, No.2, pp.236-247, 2006.
- [21] G. W. Allport,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City, NY: Holt, Rinehart

- & Winston, 1961.
- [22] K. B. Lee and M. C. Asht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39, No.2, pp.329-358, 2004.
- [23] 전미리, 김봉환,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7권, 제2호, pp.445-461, 2015.
- [24] 최영훈, 박세영, "성격 5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졸업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0회, 제3호, pp.83-111, 2016.
- [25] 박지원,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1995.
- [26] N. E. Betz,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17, No.1, pp.136-144, 1989.
- [27] 김종운, 김현희,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pp.741-766, 2016.
- [28] 유수복, 윤혜미,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9권, 제3호, pp.405-421, 2014.
- [29] K. M. Taylor and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1983.
- [30]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pp.65-83, 2015.
- [31] 황지영, 박재황,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제34권, 제5호, pp.73-101, 2015.
- [32] M. C. Ashton and K. Lee, "The HEXACO - 60: A short measure of the major dimensions of personality," *J.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91, No.4, pp.340-345, 2009.
- [33] 조명실, 최경숙,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Vol.8, No.3, pp.1085-1099, 2007.
- [34] N. E. Betz, K. L. Klein, and K. 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 of Career Assessment*, Vol.4, No.1, pp.47-57, 1996.
- [35] 이기학, 이학주,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2권, 제1호, pp.127-136, 2000.
- [36] 이명숙,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주, 2003.
- [37] 구현영, 박옥경, 정선영, "간호대학생의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로 분석-사회인 지진로이론을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제23권, 제1호, pp.10-18, 2017.
- [38] 정미경,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제21권, 제3호, pp.85-106, 2015.
- [39] 이종찬, 홍아정,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고용가능성에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HRD연구*, 제15권, 제3호, pp.215-245, 2013.

저 자 소 개

김 경 하(Kyoung-Ha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간호, 인간성장발달